

자료제공 : 2015.8.19(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과장	민지선	02-2241-3111
담당팀장	이용철	02-2241-2311
담당자	차영미	02-2241-2312

■언론보도팀
■총 2쪽

나날수록 배부른 기적, 식품기부에 동참하세요

- 성북구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제공 및 후원자 공개 모집

- 성북구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3월부터 연중, 기부식품 제공자 및 후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 식품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와 마켓은 많은 부분 외부의 기부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기부처들의 기부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성북구의 푸드뱅크와 마켓 또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일반 슈퍼마켓처럼 진열하고 등록된 회원들에게 몇가지 품목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대량의 식품과 물품을 기부받아 관내 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시중에서 똑같이 판매되고 있는 일반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기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상대적으로 식품 부족에 시달리는 이웃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성북구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기업의 쌀기부 중단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기부처의 잇따른 기부 중단으로 인해, 푸드뱅크와 마켓의 실질적인 기부식품 제공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 성북구청 김영배 구청장은 밥은 하늘이라,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도 서로 나눠먹는 것이라던 모 시인의 시를 소개하며, 먹거리를 나눠주고 나눠먹는 행동은 단순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과는 또 다른 나눔이라고 말한다. 전체적인 국민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를 나누는 것은 공기와 하늘을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며, 나눔수록 점점 배가 불러오는 기적의 식품기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성북구에는 성북푸드마켓(1호점, 성북,삼선,동선, 돈암1,2,안암, 보문, 정릉 1,2,3,4, 길음1,2동)과 행복플러스 푸드마켓(2호점, 종암,월곡1,2,장위1,2,3, 석관동), 기초푸드뱅크(성북구 전역)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관내 기업체, 단체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이용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계층구분)	이용기간	비고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년	이용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되 생활실태에 따라 개별상담 등을 통해 조정
2순위	차상위계층	9개월	
3순위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6개월	

※ 푸드마켓과 은행에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단체)은 직접 물품을 지원할수도 있으며, 식품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물품 및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의>

- 성북푸드마켓(성북동 ~ 길음2동) : ☎ 02- 981-1377
- 행복플러스푸드마켓(종암동 ~ 석관동) : ☎ 02- 765-1377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12